

‘국민 배우’ 안성기 별세…69년 연기 인생 마침표

6년여 혈액암 투병…음식물 사고로 쓰러져 영생만에 타계
남우주연상 등 40여 차례 수상…영화계 권익보호 등 활동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사진)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기는 최근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해왔다.

안성기는 2023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며 “새 영화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에 박종훈, 최민식과 함께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안성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 특별한 경쟁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와 친구 사이였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



계에 발을 들었다. 1959년 출연한 김기영의 작품 ‘10대의 반향’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

구도자의 만행을 그린 ‘만다라’(1981·임권택 감독), 빈민으로 나온 ‘꼬방동네 사람들’(1982·배창호), 거지 ‘민우’로 분한 ‘고래사냥’(1984·배창호) 등이 1980년대 안성기를 주목하게 한 작품들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남부군’(1990·정지영)을 시작으로 안정호 소설을 원작

으로 한 ‘하얀전쟁’(1992·정지영), 한국 최고의 코미디 영화로 꼽히는 ‘투캅스’(1993·강우석), ‘그대 안의 블루’(1992·이현승), ‘태백산맥’(1994·임권택), ‘퇴마록’(1998·박광춘), ‘인정사정 볼 것 같다’(1999·이명세) 등 출연 작품마다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2000년대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며 영화계 만평 역할을 했다. 인상적인 액션 연기로 첫 남우조연상을 받은 ‘무사’(2001·김성수), 한국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2003·강우석), 박종훈과 또 한 번 콤비를 이뤘던 ‘라디오스타’(2006·이준익) 등 호평받은 작품들이 많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보인 작품은 김한민 감독의 ‘노랑: 죽음의 바다’(2023)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을 보좌한 어영당 역을 맡았다.

안성기는 아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9년간 170편 넘게 출연하며 영화계를 이끌었다. 오랜 배우 생활만큼이나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려 1980년 ‘바람불어 좋은날’로 대종상영화제 신인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연기상 등을 40여 차례 받았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 주연상을 받은 배우는 안성기가 유일하다. 그는 ‘기쁜 우리 젊은날’(1987·배창호)과 ‘하얀전쟁’으로 아시아태평양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두차례 수상했다.

2013년에는 대종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

예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24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내며 영화계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으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서 사회적 활동도 펼쳤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다. 유족으로는 아내 오소영 씨와 아들 다빈·필립 씨가 있다.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원로배우 신영균이 명예위원장, 이갑상·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배창호 감독·신언식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직무대행·양윤호·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배우의 마지막 기는 길을 배웅한다.

/연합뉴스

날마다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18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걸치레보다는 실속을 쟁기며 묵묵히 내 할일을 해야 한다.
36년생: 소한 추위에 건강이 상할 수 있으니 와출을 삼가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라. 48년생: 자녀의 승진이나 합격 등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려와 집안이 화해진다. 60년생: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자. 72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지니 어깨가 무겁다. 84년생: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본인의 판단을 믿어라. 96년생: 짹사랑하던 이와 우연히 마주친거나 연락이 달아 모한 기류가 흐른다.



소띠: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다. 여행을 바라지 말고 땀을 땀이다.
37년생: 소회기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밀가루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배우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씨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한발 물러서라. 61년생: 빌려뒀던 돈을 빌려거나 빌려온 비상금을 발휘하는 소소한 황재수 있다. 73년생: 세로운 업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보람차다. 85년생: 직장 동료와의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고 협력하는 것이 원원하는 길이다. 97년생: 취업 준비생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거나 서류 전형 합격 소식을 듣는다.



호랑이띠: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면 거칠 것이다.
38년생: 빙판길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주머니에 솔을 넣고 걸기 마라. 50년생: 모임이나 단체에서 중책을 맡거나 발언권이 강해져 위상이 높아진다. 62년생: 시亞(시아) 확장을 위한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고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74년생: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나 기계부를 꼼꼼히 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라. 86년생: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다. 괴롭게도 도전해 보라. 98년생: 여행이나 출장 등 이동 중에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토끼띠: 지혜로운 토끼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39년생: 떼듯한 친구들을 수시로 미서 호흡기 건강을 쟁쟁거길 기회로 예방한다. 51년생: 매매나 계약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63년생: 자녀의 혼사나 독립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지만, 곧 해결책이 보인다. 75년생: 인간관계 대이어가 필요하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괴롭히 정리하라. 87년생: 오래된 연인과는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솔로는 소개팅 운이 좋다. 99년생: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시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는다.



용띠: 짐룡이 승천하듯 기운이 상승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라.
40년생: 집안에 고장 날 물건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묵은 애운이 사라진다. 52년생: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돋보인다. 64년생: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맺어 수익이 발생하니 입기며 미소가 번진다. 76년생: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나 오늘은 일찍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라. 88년생: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억울해도 한 귀로 흘려라. 00년생: 자격증 시험이나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스페셜 쌓게 된다.



뱀띠: 화려한 안변보다는 진실된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41년생: 마음이 불안하고 조조작 때는 종교 활동이나 명상으로 안정을 찾으라. 53년생: 뱃부의 선물이나 음돈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친다. 65년생: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동호회 활동으로 인맥을 넓혀라. 77년생: 이사나 인테리어 변경 등 주거 환경에 변화를 주면 운이 흘러온다. 89년생: 연인과 소소한 오해로 다른 수 있으니 자자수심을 세우지 말고 먼저 사과하자. 01년생: 거지래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충동구매는 후회만 남길 뿐이다.



말띠: 천 리를 달리는 말처럼 목표를 향해 쉼 없이 정진하는 날이다.
42년생: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꿈틀질을 하라. 54년생: 보증이나 금전 거래는 절대로 금물이다. 친한 사람 이일 수록 돈 관계는 확실히 하라. 66년생: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이끌면 아랫사람들의 존경과 따름을 받는다. 78년생: 청업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따로르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90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02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모임이나 기회를 찾는다.



양띠: 은회한 미소 뒤에 강한 의지를 숨기고 실속을 쟁겨라.
43년생: 주변 사람들의 경조사를 쟁기느라 바빠지면, 마음은 풍요롭다. 55년생: 부동산 매매나 계약은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라. 67년생: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반기운 만남을 가진다. 79년생: 직장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91년생: 디아트나 운동에 드는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03년생: 아르바이트나 인턴 자리로 구하는 중이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라.



원숭이띠: 재주가 넘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니 난관을 쉽게 극복한다.
44년생: 건강 검진을 미루지 말고 받아보라. 조기 예방 척결하면 큰돈을 아낀다. 56년생: 자녀들의 효도로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부부 금슬도 좋아진다. 68년생: 달콤한 유혹이나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80년생: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여 인기를 독차지한다. 92년생: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기획안이 통과되거나 업무 성과를 인정받는다. 04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이 생기지만,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찾는다.



닭띠: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시비를 가리고 옥석을 구분하는 날이다.
45년생: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보약이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컨디션을 조절하라. 57년생: 체력자마간에 재산이나 금전 문제로 다른 티를 생길 수 있으니 양보하라. 69년생: 늦었거나 생각할 때가 기장 빠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라. 81년생: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93년생: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핑크빛 기운이 흐른다. 05년생: 외모에 변화를 주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주변의 시선을 끌 수 있다.



개띠: 우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주변의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는다.
46년생: 남의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58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피고 행해져라. 70년생: 지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82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승진하거나 보너스를 받는 등 경사가 있다. 94년생: 친한 친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마라. 돈도 일고 친구도 일을 수 있다. 06년생: 학업 성적이 쑥쑥 오르고 선생님과 친한 밤마다 학교 생활이 즐겁다.



돼지띠: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35년생: 옛 주의 담금 사정을 보거나 읊을 악을 들으며 감상에 젖어보라. 47년생: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은 오늘은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59년생: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이 좋다. 71년생: 득단적인 행동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야 성공한다. 83년생: 획득수는 없으나 빌려줬던 돈을 받거나 빌려온 적금이 만기 되는 등 재물을 회수하는 운이다. 95년생: 청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으니 예술이나 창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그레이

TV·연예

예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24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내며 영화계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으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서 사회적 활동도 펼쳤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다. 유족으로는 아내 오소영 씨와 아들 다빈·필립 씨가 있다.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원로배우 신영균이 명예위원장, 이갑상·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배창호 감독·신언식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직무대행·양윤호·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배우의 마지막 기는 길을 배웅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2026 광주매일신문 시무식

제야의 증 타종식’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다

Shorts

#만화 #K팝 #야구 Z세대 ‘덕질’ 문화를 만나다

파워인터뷰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주최한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TV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광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광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

12:00 KBS 뉴스 12
1: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